

제 26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놀이

# 便射놀이



1985. 9. 19 ~ 20  
강원도 강릉시 공설운동장

# 인천직할시



# 人事의 말씀

仁川直轄市長 安 瓚 熙



豊盛한 結實의 季節을 맞이하여 郷土文化藝術의 發展을 다짐하는 第2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由緒깊은 江陵에서 베풀어지게 된것을 祝賀하며 아울러 本大會에 參加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펼쳐지는 이 盛大한 民族의 잔치는 5千年의 民族史를 通해 民族固有의 傳統文化를 꽃피어온 우리祖上들의 빛난 얼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民族文化의 暢達과 함께 希望찬 活力이 넘치는 民主福祉國家를 建設해 나가려는 民族和合의 大饗宴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삼 強調할 것도없이 民俗藝術은 民族精神의 뿌리이며 民族文化創造의 源泉입니다. 이러한 民族藝術의 脈絡을 바탕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世代가 기필코 成就해야 할 至上의 課業이며 歷史的 召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仁川直轄市가 선보이게 될 便射놀이 는 우리의 素朴한 生活속에서 움터 오랜 歷史를 通하여 겨레와 숨결을 같이하면서 힘차게 자라온 武藝中の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이 뜻깊은 民族의 盛典에서 便射놀이가 우리 傳統文化를 즐기치게 꽃피우는데 작은 힘이 되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과 鞭撻을 期待하면서 江陵市와 市民 여러분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5年 9月 日



# 便射놀이

## 考證

崔 仁 鶴 (仁荷大学校國語國文學科 教授)

놀이(遊戱)의 민속학적 의미는 매우 복잡하다. 근원을 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놀이도 있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고조시켜 협동을 기대하려는 놀이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유희적인 놀이가 있는가 하면 경쟁적인 놀이도 있다.

편사(便射)놀이는 공동체 연대의식을 기대하는 놀이로서 경쟁적인 수단을 취하는 놀이라 할 수 있다. 사원(射員)끼리 편을 갈라 활쏘는 재주를 겨루는 놀이로서 옛날에는 사정(射亭), 소속에 편을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터편사, 골편사, 장안편사, 사랑편사, 한량편사, 한출편사, 삼동편사, 남북축편사, 아동편사 등이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있는 뒤에 향리마다 사정을 짓고 편사놀이가 부쩍 성행했다. 경기지방에도 수원, 인천, 김포, 강화등지에 사정을 짓고 편사놀이를 했으니 인천지방의 편사놀이는 대충 다음과 같다.

사정은 무덕정(武德亭), 문학정(文鶴亭), 연무정(鍊武亭), 남수정(南壽亭), 남호정(南虎亭) 서무정(西武亭), 구월정(九月亭) 등 7개소였는데 구월정은 후에 무덕정으로 합정하여 6개소가 전해지고 있었으며 인천지구의 사원들은 5 - 6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익진(李翼鎭 87세), 강명희(姜明熙 82세), 최삼룡(崔三龍 78세) 최관왕(崔寬王 79세), 김현원(金賢源 68세) 씨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한말 인천군과 부평군이 편을 짜서 양쪽 고을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만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막걸이, 엿장사, 밥장사들이 즐비하여 난장이 개설되어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물론 초기에는 궁사(弓射)의 연마에 목적을 두었겠지만 편을 나누어 승패를 걸고 대항할 때는 사원들만의 놀이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협동에까지 그 기능은 확대되었다.

해마다 춘삼월에 마을과 마을 대표가 상의하여 편사날을 정하고 제각기 자기편 편장을 뽑았다. 장소도 운번으로 돌아가며 했다. 놀이를 한결 흥겹게 하기 위해 농악대가 동원되고, 승리한 편에서는 삼현육각으로 연주를 하며 기생들이 동원되어 함께 춤을 추며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편장과 사원이 등장하면 모두가 가슴을 조이며 지켜봤다가 과녁을 명중했을 때는 기를 높이 치켜 흔들며 지화자를 외치고 한바탕 무도를 했다. 편사놀이는 관민이 모두 축제분위기에 젖으며 사원들의 무예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을의 명예와 협동심을 걸고 대항하는 민속놀이로서 그 기능과 가치는 높이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인천에서 이 편사놀이를 경연대회에 내놓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사놀이는 관민 혹은 상하의 차별없이 모두가 일체가 되어 축제에 참여했다는 점,

둘째, 편사놀이를 통해 무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

셋째, 마을 대항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연대감이 한결 고조되었다는 점 등을 들을 수가 있다.

발 곶 자 鄭 一 晁 (韓國國樂協會仁川支部 副支部長)

연 출 朴 宗 助 (富平女子高等學校 教師)



## 解 說

편사(便射)놀이는 활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해 왔던 무예(武芸) 겨루기다. 편사(便射)의 시초(始初)를 뚜렷이 어느 시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렵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형식에 의한 편사(便射)는 고려 상엽기(高麗 上葉期)로 볼 수 있고 더욱 다듬어진 형식(形式)의 편사(便射)놀이는 조선왕조 초기(朝鮮王朝 初期)로 볼 수 있다. 편사(射)의 주된 목적은 한량(閑良)들의 궁사기량(弓射技倆)을 향상하는데 있었으나 이질적(異質的)인 놀이로 변해 한량(閑良)들이 소일(消日)하는 방편(方便)놀이로 전락(轉落)해 기생(妓生)과 악공(樂工)을 등장시켜 흥을 돋구기도 했다.

같은 사정(射亭)의 궁사(弓士)끼리 놀았던 편사가 사정과 사정과의 대항 편사로, 고을과 고을과의 편사로 차츰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고을과 고을간의 대항편사(對抗便射)가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궁사(弓士)를 응원(応援)하는 것은 물론(勿論)이지만 양쪽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많은 장사치가 모여 들거나 잡다(雜多)한 놀이판이 벌어져 난장(亂場)이 되기도 한 편사놀이는 음력 정월이 지난 이월에 흔히 놀았으나 우기(雨期)나 영농기(營農期)를 피해 수시(隨時)로 벌어졌다.

사정(射亭)에서 145m떨어진 곳에 가로 6자6치, 세로 8자8치인 과녁판을 세우고 3명이든 5명이든 편을 갈라 오시(五矢)삼순(三巡)으로 서로 솜씨를 겨루었다. 그러나 오늘 펼치는 편사에서는 궁사 8명이(청군 靑軍 4명, 황군 黃軍 4명) 일순(一巡) 오시(五矢)만을 쏘게 된다. 화살이 과녁에 관중(貫中)하거나 관외(貫外) 또는 월시(越矢)를 하면 고전원(告伝員)이 조그마한 수기(手旗)로 그때그때 무겁 양익(兩翼)에 있는 거기한량(拳旗閑良)에게 알리고 거기한량(拳旗閑良)은 큰 기(旗)를 높이 쳐들어 사정(射亭)측에 관중여부를 알리는데 관중이면 삼현육각(三絃六角, 이 놀이에서는 육각만 나온다)이 울리고 기생(妓生)이 지화자 노래를 부르며 관중한 쪽의 동리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야단법석이다.

흔히 기생과 악공(樂工)이 사정 한켠에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 이 놀이에서는 악공(樂工)은 사정하단(下段) 남쪽에, 기생은 북쪽에 자리를 잡도록 한다. 오늘 펼치는 편사가 지닌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록 놀이의 명칭이 붙었을 말정 무예를 연마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예의를 바르게 차린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점
2.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놀이에서 승패자간에 조성되기 쉬운 위화감을 배제하고 화동 화동 화합하는 놀이 마당으로 꾸미고 있는 점
3. 위계(位階)와 장유(長幼)간에 예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
4. 겸양의 미덕을 놀이에 심고 있는 점
5. 놀이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무예를 닦는 일종의 무예놀이이므로 엄격한 규율하에 놀이를 벌이고 있는 점



## 놀이장면

청군, 황군으로 편을 짝 군사들은 사시(射矢)에 앞서 거행하는 여러가지 절차를 끝낸다음 풍세(風勢)와 사장(射場)의 정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끝번공사인 종따가 사사(試射)를 한후 145m 전방에 세워놓은 과녁판을 향하여 편장(便長)부터 차례로 활을 쏜다.







과녁을 향하여 날라온 화살이 과녁에 관중(貫中)했는지  
 변관(邊貫) 또는 월시(越矢)를 했는지 고전원(告伝員)이 무  
 겁에 있는 거기한량(拏旗間良)에게 조그마한 수기(手旗)로  
 알리면 그것을 거기한량이 기(旗)를 가지고 사정(射亭) 쪽  
 에 알린다.

알리는 신호가 관중이면 사정쪽에 있는 악사(樂士)가 풍  
 악을 울리고 기생이 지화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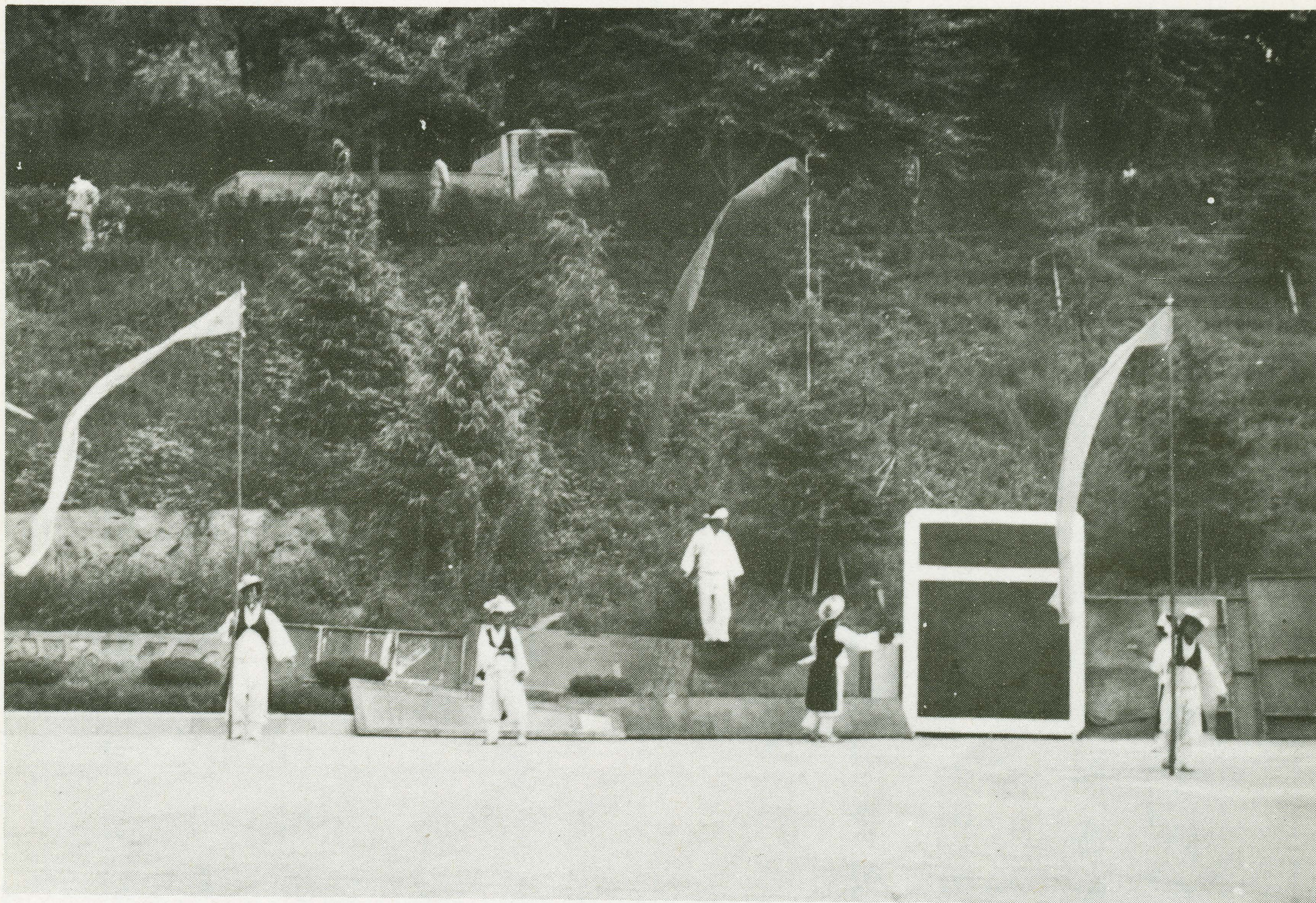


## 놀이장면

궁터밖에서 두패로 갈라져 관전과 응원을 하는 마을사람들이 자기편 궁사(弓士)가 관중(貫中)을 하면 그때마다 함성을 지르거나 춤을 추어 야단법석을 떤다. 그러다가 자기편 궁사가 승리를 거두면 장내는 승리에 도취된 난장판이 되지만 패한쪽의 마을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울려서 노는 화동(和同)마당을 조성한다.







사정 (射亭)으로부터 145m 떨어져 세운 과녁판은 가로 6자 6치, 세로 8자 8치로 꾸미며 과녁판뒤 높지막한 곳에 풍세 (風勢)를 가늠할 수 있는 풍기 (風旗)를 세운다. 양쪽 무렵에는 거기한량 (拳旗間良)이 있고 과녁판 곁에 고전원 (告伝員)과 화살을 줍는 시동 (侍童)이 있다.



## 출연자 명단

배	역	성	명	배	역	성	명
편	장	김	원	호	창	최	복
공	사	김	진	거	기	김	신
	〃	이	길	고	〃	최	철
	〃	정	철	시	전	오	근
	〃	김	원	옛	〃	최	환
악	사	이	옥	동	동	이	일
	〃	최	창	동	수	김	덕
	〃	이	수	동	〃	심	병
	〃	임	옥	동	인	김	기
	〃	전	룡	동	〃	임	호
	〃	김	국	동	〃	이	은
	〃	조	춘	동	〃	이	국
	〃	이	석	동	〃	이	규
	〃	이	렬	동	〃	이	원
기	생	전	화	동	〃	이	기
	〃	김	숙	동	〃	이	종
	〃	여	이	동	〃	이	재
	〃	김	애	동	〃	이	영
시	수	김	전	동	〃	이	제
청	수	김	구	동	〃	이	선
백	수	서	원	동	〃	이	광
태	수	김	술	동	〃	이	영
평	팔	권	명	동	〃	이	기
	〃	최	룡	동	〃	이	현
시	지	김	복	동	〃	이	형
	〃	흥		동	〃	이	선
	〃			동	〃	이	병
	〃			동	〃	이	병







